

일 주 문

인드라마 정기총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월 23일 신정동 교육도량에서 인드라마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576-1890

계사년 정초 산림기도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2월 12일 송광사 응진당에서 계사년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새해소원 10만 연등불사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2월 24일 까지 새해소원등 10만연등불사를 진행한다. (053)982-0101

겨울 마음자라기 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마음자라기 캠프를 개최한다. (041)330-7700

행원문화재단 이사회
주영은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월 11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기본재산 2억 1천5백만원 증자를 의결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에 탄웅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탄웅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1999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2005~2011년까지 관음사, 한산사, 극락사, 대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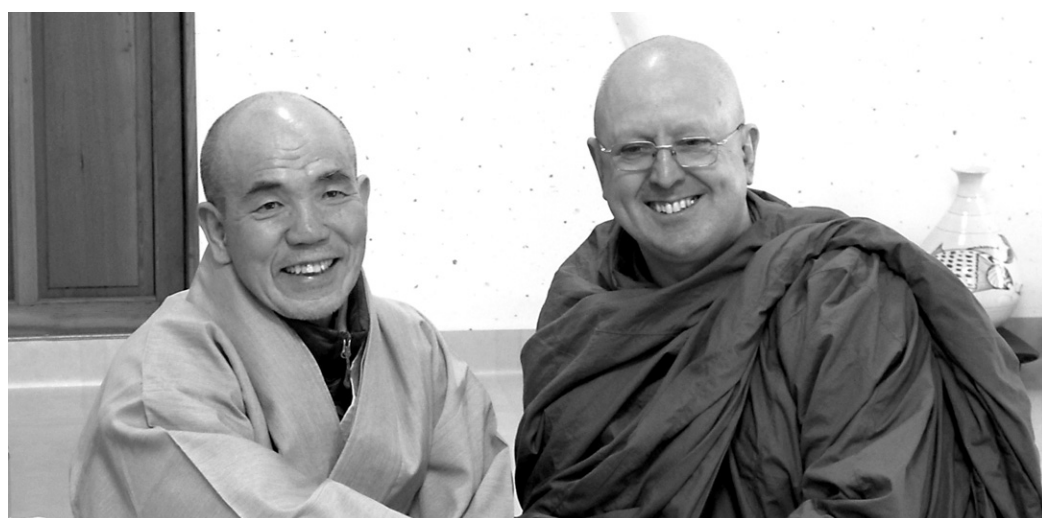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단행
동국대 서울캠퍼스(총장 김희욱)가 1월 17일자로 대학원장·대학장과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에는 정승석 불교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불교대학원장이었던 계한 스님은 중앙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생교육원장 겸 원격평생교육원장에는 중앙도서관장이었던 박경준 불교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정승석 △문과대학장 조정숙 △전라기획본부장 이학호 △사상개발본부장 김계현 △운영지원본부장 박상관 △미래인재개발본부장 윤성이 △중앙도서관장 계한 스님 △평생교육원장 겸 원격평생교육원장 박경준 △교양교육원장 박선형 △동국미디어센터장 김관규

“가는 길 다르지만 깨달음 향한 열망 같아”

초기불교와 간화선의 만남... 아잔브람 VS 적명 스님 좌담

참불선원 주최 1월 16일 봉암사에서

참불선원 아잔브람명상센터(선원장 각산)가 주최하는 ‘초기 불교와 간화선의 만남’이 1월 16일 봉암사 선영당에서 열렸다. 세계적 명사가 아잔브람 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장 적명 스님은 4시간 동안 한국 불교와 남방 불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하는 좌담을 펼쳤다. 좌담회는 두 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원담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했다.



아잔브람 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장 적명 스님(사진 왼쪽)은 1월 16일 봉암사에서 ‘간화선과 초기불교’에 대해 좌담회를 펼쳤다.

적명 스님은 기조 법문을 통해 “간화선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다. 화두라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말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면 계속 반복해서 의심을 따라가면서 의심을 반복해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가지만 이후에는 순수한 의심 상태가 되고 수행이 깊어지면 수면상태에까지 화두가 지속된다”며 간화선과 화두를 설명했다.

적명 “간화선은 화두를 지속시키는 상태” 아잔 브람 “행복해지기 위해 명상 시작”

다. 한편 의심을 해바라 참구해바라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내 삶에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 해결 방식만 찾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국 선전통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처음 명상을 할 때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 위에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했다”며 자신이 불교를 접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 봤다. 의심하지 말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권해바라”고 전했다.

물리학을 전공한 아잔브람 스님과 과학 잡지를 즐겨 읽는다는 적명 스님은 뇌와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적명 스님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마음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사성제가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다. 12연기도 마음에 대한 법문이다. 마음을 제외한다면 부처님의 어떤 법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마음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초기불교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하나는 아라한과로 탐진치를 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열반으로 완전한 소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멸한다는 것은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뇌가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부처님 말씀은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깨침의 길에 선정은 필수일까? 적명 스님은 “끊어지지 않는 삼매야라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 화두 수행중에도 선정에 드는 수

가 있다. 몇시간 며칠씩 선정에 드는 스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결국 선불교에서는 저절로 선정에 들기는 하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일은 없다”고 얘기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초기 경전에서 선정이라는 것은 다섯 감각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선정의 목적은 모든 사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초인적인 상태 수승한 분의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선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은 “영어에서는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고요함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명상을 잘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점점 놓아버리다 보면 선정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명상 수행도 중요하지 않다. 계속해서 놓아버리고 지배하려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을 그칠 때 언젠가 선정이 온다”며 선정의 상태를 얘기했다.

두 스님은 4시간의 좌담 끝에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든 깨달음으로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잔 브람 스님은 “이 좌담회를 통해 두 불교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진철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초기불교와 대승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적명 스님은 “종교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왔고 오늘과 같은 각각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가깝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견해차가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둘이 융화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말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문경 봉암사·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뒤늦게 알려진 ‘재소자들 어머니’ 영면

구랍 12월 8일 별세... 1월 25일 49재

‘재소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었던 교정포교의 산증인 안청정행(본명 안효진) 보살의 별세가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다녔던 불광사 신도 김용숙 씨는 “평생 바라밀 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안 보살의 자비행은 불자들의 사표”라며 “불광사 신도들도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한다. 안 보살의 왕생 극락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장성들, 신년 맞아 군포교 진흥 발원

1월 14일 국군불교 신년법회 봉행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원태호)는 1월 14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장성불자와 국군불교 후원회 임원진과 함께 신년 법회를 봉행했다.



로 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총망할 때, 진정 강한 군과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비역 장성불자와 국군불교후원회 임원진은 매월 108산사 순례활동, 봉사활동 등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 이은 축하무대에서는 정물 스님과 군 불교 문예단인 관무용단(단장 이영민), 성악가 임형주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과 부교구장 선일·심산 스님, 총책의장 정범 스님, 육해공군 현역 선임법사,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손수태 예비역불자회 회장, 민병덕 국군불교후원회 회장, 송영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영 前국방부장관, 임흥빈 前육군참모총장, 김상기 前육군참모총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박정기 예비역 대장과 현역 및 예비역 장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군포교는 불교만을 위한 불사가 아닌 군과 나라에 기여하는 참 불사가 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

봉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축하 국민 대 통합 기도회 행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을 축하하며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민족종단, 문화계 등이 연합하여 국민대통합과 안경을 기원하는 “국민대통합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명법사단 : 대법주 : 영공도성 큰스님, 증명대법주 : 만용도일 큰스님, 증명대법사 : 경우 큰스님, 증명법사 : 정각 큰스님, 흥교 큰스님, 대통합위원장 조연 큰스님, 대통합명예위원 : 범종단 각종정예회 및 총무원장 큰스님 불교공동대표 : 보광 큰스님, 보각 큰스님, 영월 큰스님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봉행위원장 석능인 합장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이 사 장 송진호

- 일 시 : 2013년 1월 25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불교행사 오후 2시 부터)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룸
■ 주 최 : 범종교 통합기도회 추진위원회 / 사)한국청소년영양예술진흥원 / 사)국제할레루아드 / 사)한민족세계성교원 / 재)세계불교법왕정평화재단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54번지 7층 701호 www.budapic.org)
■ 후 원 : (예정사항)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경기도, KBS, YTN, 미라클시티건설사업단 등
■ 문 의 : 전화 02) 706- 0074 / 팩스 02) 706-0154 / 010-6302-4514 E-mail : sliris@naver.com sambo111@hanmail.net

*참석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경우 저희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 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NTEX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 전화 031)810-8114, 팩스 031) 810-8083
•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9700, 76-1, 77, 77-2, 9708, 9707, 87, 87-3, 3000, 3300, 150
• 자 기 용 : 강변북로 → 자유로 → 미산포C → KINTEX서문